

□ 사례 발표 □

사이버대학 '유니텔 가상대학'의 구축사례

김 세 중[†]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6. 유니텔 가상대학 메뉴 구성 |
| 2. 가상대학의 명칭과 위상 | 7. 유니텔 가상대학 입학 및 수료 절차 |
| 3. 가상대학의 설립 배경 및 필요성 | 8. 유니텔 가상대학 운영 조직 |
| 4. 유니텔 가상대학의 추진 방향 | 9. 유니텔 가상대학 서비스 절차 |
| 5. 유니텔 가상대학 운영 방식 | 10. 맺음말 |

1. 머리말

가상대학(Cyber University ; 사이버대학)이란, 실제의 땅과 건물로 이루어진 대학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서 교수와 학생이 강의와 학습을 하는 대학을 말한다.

기존의 대학은 같은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교수와 학생이 모여야만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반해, 사이버대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큰 차이로서, 학생은 시간이 날 때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고, 서울, 지방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인터넷이란 통신망을 통하여 강의를 받을 수 있다.

원서접수, 시험, 리포트, 출석 체크, 동아리 활동, 도서관 이용, 총학생회 구성, 음악/미술 감상, 학점 및 수료증 수여 등 대학에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상에서 똑같이 이루어진다.

사이버대학을 이용하면 교수와 학생들은 교통 체증에 시달리며 학교에 가지 않고 서재와 공부방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는 것만으로 모든 강의와 수업 준비를 끝낼 수 있다. 음성과 이미지, 텍스트가 보기 좋게 어우러진 강의 교재가 컴퓨터 안에 있고, 교수와 학생은 컴퓨터로 대화를 한다. 학교 측은 비싼 돈을 들여 캠퍼스 부지와 건축비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니 학습을 위해 간접적으로 투자되는 시간, 공간, 비용 등의 외형적 요소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사이버대학의 등장은 바로 이런 점에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연 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력이 이룬 매우 큰 의미의 소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

사이버대학은 현재 미국 등 일부 정보 선진국에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 정회원 : 삼성SDS 유니텔사업부 정보개발팀 과장

삼성SDS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컴퓨터통신 “유니텔”이 국내 최초로 지난 3월 10일부터 “유니텔 가상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본 글은 현재 국내외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원격교육에 대한 논의와 서비스 태동에 맞춰 국내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대학을 설립한 ‘유니텔 가상대학’의 설립 과정과 운영 방식 등 구축 사례를 밝히고자 한다.

2. 가상대학의 명칭과 위상

현행 교육법에서는 정규 대학이 아닌 경우 ‘대학’ (University)이란 단어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을 금하고 있다.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대학이 아니면서 ‘대학’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대학 설립 기준’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고,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니텔이 추진한 가상대학은 기존의 대학과는 달리 컴퓨터통신상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대통령령의 ‘대학 설립 기준’과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유니텔에서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면서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가상대학’ (Cyber University)이란 이름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가상대학의 소재가 삼성SDS(주)가 운영하는 컴퓨터통신 ‘유니텔’ 내에 존재하므로 ‘유니텔 가상대학’ (UNITEL Cyber University)이라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3. 가상대학의 설립 배경 및 필요성

3.1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교육의 필요성

고도의 정보화 사회 속에서는 급격히 변화되

어 가는 정보들의 습득이 절실히 요청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는 기존의 교육 방식들은 다양한 정보의 효율적인 습득이 어렵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각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는 효과적인 새로운 교육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3.2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의 필요성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술은 고도로 발달, 세분화되고 있으며, 직업은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현 상황 속에서는 정규 학교 교육만으로는 제한점이 크며, 교육받는 연령과 시기, 교육 내용, 장소, 방법 등의 다양성이 고려되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

3.3 직선적(one-way) 교육에서 상호작용적(interactive)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성

기존의 교육 방법들 - 학교, 교육방송, 교육 비디오 등의 강의 - 은 교사가 제공하는 지식을 학생이 단선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단선적 교육 방식은 학생 개개인의 차이를 무시한 획일적인 수업으로 학생의 흥미를 반감시키기 쉬운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적 교육 방식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수업의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가 요구된다.

3.4 Know-how에서 Know-where로의 교육 방향 재정립 필요성

폭발적인 정보의 증가로 인해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용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동일한 학습의 장에서 다각적 관점으로 탐구활동을 하는 가치를 경험하도록 돕는 새로운 교육 형태가 요청된다.

3.5 첨단기술(Hypertext, 멀티미디어, 가상현실, 인터넷)의 적용을 통한 효과적인 교육의 필요성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 속에서 산재해 있는 고도화되고 거대한 양의 정보를 다양한 각도에서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의 적절한 사용이 요망된다. 첨단 기술들을 가상 공간에 집합시킴으로써 정보를 습득하는데 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고, 교육 효과의 극대화와 아울러 교육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

3.6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필요성

가상대학의 설립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더욱 쉽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배경 때문이지만 여기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 기존에는 대학을 설립할 때 기본적으로 거대한 부지와 학교 건물 등이 필요해 설립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가상대학에서는 이들을 위한 투자비용이 거의 불필요해 적은 비용으로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고효율의 교육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외국 대학에 유학을 갈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도 매우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

3.7 나이와 학력을 초월한 평생교육 차원의 학습 필요성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 결혼하여 살림을 하는 주부, 정년퇴직을 한 사람, 나이가 든 노인,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 자동차를 수리해 주는 정비공, 신자들에게 설교를 하는 목사나 스님, 의사, 간호사,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계발에

목말라 하고 있다.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를 계속 하고 싶지만 자신이 원하는 저명교수의 각종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은 대학 이외에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대학의 문은 매우 높고 여타 여건은 학습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가상대학의 문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가상대학이 사회에 뿌리내림은 교육 평등화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큰 작용을 하게 된다.

4. 유니텔 가상대학의 추진 방향

4.1 국내외에서 해당 분야 최고의 업적을 보유한 교수의 강의 유치

가상대학의 핵심은 강의의 질 확보이다. 기능이 아무리 좋고 첨단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강의의 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진리탐구의 전당인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춘 것이라 볼 수 없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까지도 해당 분야에 정통한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강의를 유치할 것이다.

4.2 교수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탈피, 상호작용을 통한 쌍방향 교육 실현

교수가 작성한 원고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단방향적 학습 방식을 탈피, 교수와 학생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교수는 연구실에서 가상대학에 미리 등록된 그림과 참고자료 등이 어우러진 강의 내용을 보면서 음성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세계 유수의 웹사이트를 불러 학생들에게 보여 준다. 학생들은 강의 내용과 교수의 음성을 들으면서 손을 들어 자신의 음성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 교수와 학생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련의 질의/응답은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전통 대학에서와 똑같이 듣고 있으며 상호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4.3 엄격하고도 체계적인 학사관리

교수와 학생이 직접 얼굴을 대하면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대학과 달리 가상대학은 학사관리와 학생관리가 방만해질 수 있다. 학생이 어떻게 학업에 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되므로 학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상대학은 제대로 정착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시험, 리포트, 출결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며,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 부여 등 모든 관리는 담당교수의 직접적인 참여 하에 매우 엄격히 집행되어야 가상대학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4.4 학습자가 자신의 진도와 학습 방법을 결정

하고 공부하는 자유롭고 여유로운 학습 체제

전통적인 대학에서의 강의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은 해당 시간에 강의 장소에 없으면 그 강의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또한 해당 강의시간에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진도를 따라갈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간간히 필기해 놓은 공책을 보면서 복습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가상대학에서는 강의가 진행되는 그 시간에 다른 바쁜 일로 강의를 듣지 못했어도, 그리고 필기를 해 놓지 않아도 이미 등록돼 있는 교수의 음성과 강의 내용을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자재로 열람하여 학습할 수 있고, 진도 따라잡기에 벅찬 사람들도 여유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게 된다.

4.5 학습과 연구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들을 전자도서관에 구축

전통 대학에서와는 달리 강의를 들으면서 간단히 원하는 참고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점이 가상대학의 장점이자 편리함이라 할 수 있다. 기존 대학에서는 강의를 듣다 잘 모르는 부분은 질문 이외의 방법으로 즉시 알아볼 수가 없지만 가상대학에서는 마우스 클릭 몇번만으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연계학습이 이루어져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전자도서관의 방대한 자료 구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구축 기간은 물론 비용 또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영역으로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따라서 구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가상대학에서는 강의의 질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므로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4.6 최첨단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국가의 종합 교육인프라 구축 지원

전통적인 개념의 대학을 컴퓨터통신상에 설립한다는 것은 몹시도 버거운 일이다. 그러나 고도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달 등으로 매우 복잡해져 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대학만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 시간에 쫓기고 공간에 제약을 받는 기존 대학은 다양한 사람들의 평생교육을 전담할 수 없게 돼 버렸다. 따라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가상대학이다. 기존 대학에서의 강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최첨단의 기술을 동원,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가상대학의 탄생은 국가의 효과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5. 유니텔 가상대학 운영 방식

유니텔 가상대학의 학사 운영은 기본적으로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는 국내의 우수 강좌를 대폭 유치, 학생과 주부, 직장인, 경영인 등이 책상에 앉아서 더욱 다양한 지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2단계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모든 교과목들을 기존 대학에서의 학과 단위로 취합, 편성하여 4년제 대학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도록 할 것이다. 3단계는 기존의 전통적인 대학과 똑같이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교육기관으로 탄생시켜 정규 코스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공인 학위를 수여하는 체계가 되도록 지속 추진할 것이다. 다음은 97년 3월에 출범한 유니텔 가상대학의 현재 운영 방식과 앞으로의 계획이다.

5.1 학기

학기는 1학기를 3개월씩으로 하여 1년에 4학기(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운영된다.

봄학기는 3월~5월, 여름학기는 6월~8월, 가을학기는 9월~11월, 겨울학기는 12월~2월로 진행된다.

5.2 강의 주기 및 시간

강의 주기는 한 교과목당 1주일에 2회(월, 목요일)씩 3개월 동안 총24회가 진행되며, 1회 강의당 30분~1시간 가량 학습할 수 있는 분량의 강의 내용이 제공된다.

5.3 개설 과목

과목은 학기당 최소 4~6개를 누적 개설하게 된다. 97년 3월 10일 개강을 한 봄학기의 개설 과목은 대중문화론(성공회대 김창남 교수), 한국 근/현대사(고려대 강만길 교수), 동서양의 미술세계(서울교대 조용진 교수), 여성학(이화

여대 장필화 교수) 등 모두 4개 과목이다. 6월부터 진행되는 여름학기에는 뉴미디어와 정보사회(연세대 강상현 교수), 문화인류학 입문(서울대 이광류 교수), 한국문학사와 세계문학사(서울대 조동일 교수), 법학 입문(고려대 이상돈 교수), 민족과학사(외국어대 박성리 교수), 한국 근대사회의 형성과 발전(서울대 신용하 교수) 등 총 6개 과목이 추가로 개설된다. 따라서 봄학기에 4개였던 과목들이 여름학기가 되면 총 10개의 과목으로 늘어나고 가을학기가 되면 최소한 15개 과목이 개설된다.

매 학기 개설되는 강의의 수준은 일반 교양 수준을 벗어난 실용적이며 전문적인 수준으로 설정돼 수강생들이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4 수강 자격

입학 자격은 학력에 관계없이 20세 이상인 유니텔 가입자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5.5 수강 인원 및 수강생 유형

한 과목당 수강 인원은 최대 300명까지로 한정된다. 시험과 리포트, 출결 체크, 질의/응답 등 수강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수강 인원을 한정하여 최대 300명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험, 리포트 등 평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청강체도를 두었다. 그러므로 한 과목당 정규 수강생 300명 이외에 다수의 청강생이 강의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봄학기에 수강신청을 한 사람들은 모두 5,000여명이다. 이들 중 1,200여명은 정규 수강생이고 3,800여명은 청강생이다. 개설된 4과목의 수강생들은 각 과목당 최소 900명에서 1,500명까지 매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기존 대학에서는 정해진 인원만 이 들을 수 있는 한계를 가상대학에서는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질 높은 교수의 강의를 국내의 섬지방 사람들은 물론 국외의 사람들 한테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5.6 수강 과목 수

수강생 한 명이 가상대학에 입학하여 한 학기 동안 수강할 수 있는 강의 수는 최대 5개 교과목 까지 허용할 생각이었으나 이번 봄학기 학생들의 수강 형태를 지켜보면서 최대 2~3개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대학은 오로지 학교에만 다니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강의를 듣게 되므로 학기당 18~22학점이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가상대학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거나, 살림을 하는 주부, 학교를 다니는 학생 등 본래의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주 2회 진행되는 강의를 두 과목 이상 참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여름학기부터 진행되는 강의는 최대 2~3 과목 이내에서 수강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5.7 평가제

평가는 한 학기에 시험 1회, 리포트 1회 이상을 치르고 담당교수가 부여한 학점과 시스템이 체크한 출결점수를 토대로 담당교수가 최종 결정한다. 시험 및 리포트 성적과 출결점수를 각각 몇 %씩 적용할 것인가 등 학점 부여는 기존 대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두 교수가 직접 시행한다. 단 평가 기준은 가상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을 따르는데 4.5(A+)를 만점으로 4.0(A), 3.5(B+), 3.0(B) 등 F학점까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적이 주어진다. 출결점수는 출석 횟수에 따라 23~24회 출석이면 100점, 21~22회이면 80점,

18~20회이면 60점, 0~17회만 참석했으면 0점으로 처리한다.

유니텔 가상대학에서 부여하는 학점은 현재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문제는 컴퓨터통신을 통한 학습의 '학점 인증제'가 허락되어야만 가능하다. 현재 가상대학에 대한 학점 인정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과 관계기관에서 법률화를 추진 중에 있다. 학점 인증제가 도입되면 가상대학 수강생들은 가상대학으로부터 받은 학점을 모든 기관과 학교 등에서 정식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5.8 수강료

현재 유니텔 가상대학의 수강료는 무료이다. 봄학기가 시작된 3월부터 여름학기가 끝나는 8월까지 두 학기 동안은 가상대학 운영 시범학기이다. 국내 최초로 설립된 가상대학의 체계를 확고히 하고, 문제점이 있는지를 진단하여 향후 대학의 운영에 참조하기 위함에서이다.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유료화할 예정이나 수강료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5.9 수료증

출석시간을 체크하여 소정의 이수시간을 채우고, 시험과 리포트 등을 통해 담당교수로부터 D 이상의 학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5.10 학생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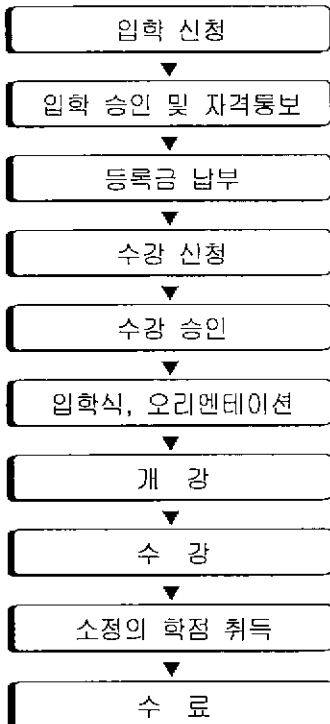
학생들 간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 간의 동아리 모임 또는 특별활동 등을 갖도록 적극 지원하며 야외수업, 학술답사, 축제 등을 별도로 주최해 상호 교류를 통해 유대관계가 돈독히 되도록 한다.

6. 유니텔 가상대학 메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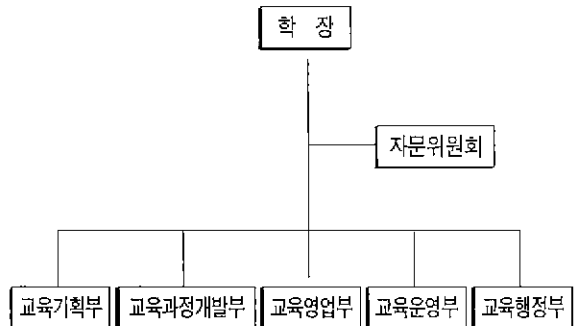
메뉴구성	내 용
학교안내	교육이념, 목표, 방향, 학칙, 시범강의 등 학교 전체를 소개해 놓은 곳
수강안내/신청	수강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받고 그에 따라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곳
강의실	강의 내용이 이미지와 용어해설 등과 Hypertext로 묶여 실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곳
대학본부	수강생의 성적과 출결상황, 등록금 납부 등 학사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전자도서관	국내외의 각종 도서관 및 신문, 잡지, 방송 등과 공개자료실의 Web Site가 정리된 곳
토론광장	학생들 및 학생, 교수, 운영자 간에 자유롭게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곳
우체국	전자우편을 통한 의견 교환과 질의/응답, 시험과 리포트 등을 제출하는 곳
어학실	TOEIC, 생활영어, 일어 회화 등 각종 외국어를 첨단 시스템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곳
휴게실	오락실, 전시실, 음악실, 영화감상실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동아리 및 동문회	취미생활이나 세미나 등을 하기 위한 소모임 및 가상대학 수료생들의 활동 공간

7. 유니텔 가상대학 입학 및 수료 절차

다음은 유니텔 가상대학에 입학하기부터 강의를 듣고 수료하기까지의 절차를 순서도로 나타낸 것이다.



8. 유니텔 가상대학 운영 조직



가상대학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5개의 실무부서와 자문위원회, 그리고 학교를 총괄 운영할 학장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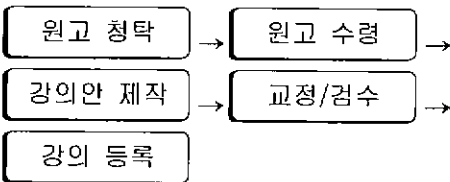
‘교육기획부’는 교과목 선정 및 교수 섭외와 학교 전반의 방향을 모색하고, ‘교육과정개발부’는 섭외된 교수의 원고를 바탕으로 온라인 교재를 제작하고, 교과목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전자화하며, ‘교육영업부’는 수강생 유치 및 대학 홍보를 담당한다. ‘교육운영부’는 대자보, 게시판, 등 이용자와의 접점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교육행정부’는 등록금 등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9. 유니텔 가상대학 서비스 절차

가상대학에서 교수의 강의 내용이 수강생에게 서비스되기까지에는 몇 단계의 절차를 밟는다. 먼저 교수에게 원고를 청탁한다. 교수는 매주마다 자신이 강의할 내용의 원고를 사진이나 동영상자료, 음성 등과 같은 참고자료와 함께 강의안을 제작하는 교육과정개발부에 넘긴다. 교육과정개발부에서는 넘어 온 원고와 각종 참고자료, 용어해설 등을 가지고 수강생에게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강의안을 디자인하고, 본문의 단어와 용어해설을 하이퍼텍스트화하여 연결하고, 적절한 자리에 사진을 위치시키는 등 원고를 HTML 문서화한다.

이렇게 강의안 제작이 완료되면 교육과정개발부에서는 이 강의안을 교육운영부에 넘기게 되고, 교육운영부에서는 최종 교정 및 검수를 한다.

교정 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HTML 문서를 수정하기 위해 교육과정개발부에 수정 의뢰를 하고, 수정이 완료되면 수강생을 위해 강의를 등록하게 된다.



10. 맺음말

유니텔의 이번 가상대학 설립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다. 국내 어디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최초의 사이버대학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처음부터 전통적인 4년제 대학의 학사운영 체계를 그대로 옮겨와야 한다는 욕심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 4년제 대학의 전형을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준비를 하여야 했고, 단 몇달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하고, 1차로 오늘과 같은 모습의 ‘유니텔 가상대학’을 만들 수 있었다.

기존 대학이 학과 위주로 강의를 운영하는데 비해 우리는 교과목 위주로 강의를하기로 하였다. 이유는 기존 대학처럼 학과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초기 개설 과목 수가 너무 많아 개설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막대해지고, 학과 수를 제한하여 개강을 하자면 이용층의 폭이 매우 좁아질 염려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전공 위주로 편성돼 있는 기존의 틀을 일단 벗어나 교양대학 수준의 대학으로 운영해 나가다가 어느 정도 과목이 누적되면 이들을 모아 학과 단위로 편성하고, 뒤이어 법적 제도가 허락하는 대로 4년제 대학의 모습을 갖추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수강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기로 하였다.

학기제는 기존 대학이 정규과정 두 학기(봄, 가을)와 계절학기(여름, 겨울)로 편성, 운영하는데 비해 가상대학은 온라인교육의 특성에 따라 계절학기를 따로 두지 않고 1년에 네 학기 전체를 정규과정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4학기 동안 운영되는 교과목들은 기본적으로 주 2회 3개월 동안 총 24회 강의를 이루어지지만 향후 담당강사의 강의를 직접 들으면서 의견을 주고 받는 1일 1~2시간짜리 특강을 수시로 개설하게 된다.

가상의 공간에 전통적인 대학의 체계를 옮겨오는 일은 매우 힘든 작업이었다. 기존 학교의 기구과 건물에 따른 메뉴 구성, 수강신청 및 승인 전산화, 개설 과목 선정 및 담당교수 섭외, 시험/리포트 제출에 따른 온라인 평가 시스템 구축, 출결 자동체크 시스템 구축, 학교 전체 디자

인, 학교 로고 제작, 강의 방식 결정, 학교 이념/목표/방향, 학칙 제정, 인터넷 기반에서 최적의 학습환경 유지 방법, 개교식 등 하나에서 열까지 실제의 대학을 설립하는 노력과 검토가 다 이루어져야 했다.

유니텔이 설립한 이번 가상대학의 탄생은 분명 온라인교육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의미하며, 현재의 교육환경에 일대 변혁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산물이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학교 건물이 필요없게 되어 학생과 교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대학이 된다. 학교를 짓기 위해 필요한 거대한 캠퍼스 부지의 확보가 필요없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교통체증에 시달리며 등하교를 하지 않아도 꽤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집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것만으로도 모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가상대학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 경제력과 지역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없어 교육 기회의 차별이 존재하던 현실 교육의 폐해가 극복되어 학습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저명교수의 명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교육이 물리적인 거리를 없애고 교육에 투자하는 설립 비용 등을 크게 낮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가상대학은 평생교육의 장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거나 살림을 한다 하더라도, 또 손자가 있는 할아버지나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자실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장점들이 학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또 현재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도포기했던 사람들이 가상대학에 기대는 바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던

사례가 바로 유니텔 가상대학이었다.

97년 3월 10일 봄학기 개강을 앞두고 유니텔 가상대학에서는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9일 동안 수강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공지를 내보냈다. 개설 과목은 모두 4과목이었는데 강좌당 300명이 정원이므로 1,200여명의 학생을 모집하려면 적어도 1주일 넘게 접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접수 첫날 신청은 마감되었다. 정원 300명을 선착순으로 뽑는다는 전제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호응이 클 줄은 몰랐던 것이다.

결국 가상대학 운영위원회에서는 1,200명 정도의 인원만으로 첫 봄학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이미 신청한 사람들은 정규 수강생으로 하고, 3월 6일까지 접수하는 사람들은 청강생으로 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 뒤 수강신청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정규 수강생은 전자메일이나 질문 코너를 통해 담당교수에게 질의를 할 수 있으나 청강생은 질의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3월 6일 수강신청을 최종 마감한 결과 교과목마다 수강생이 최대 900명에서 최대 1,500여명까지 접수를 하여, 한 학기 총 24회차 강의 중 22회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5,000여명의 학생들이 강의에 참가하고 있다.

이들 학생들은 주부에서 회사원, 공무원, 구의원, 목사, 정비사, 교사, 대학생, 경영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62%, 30대가 30%, 40대가 6% 정도이다. 성별로는 남성(74%)이 여성(26%)보다 많았으나, 여성층에서는 주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부들의 자기계발 열기가 대단함을 알 수 있었다.

국내 가상대학의 성패는 이러한 교육 열기를 얼마나 잘 흡수하여 이용자들이 기존의 교육 환경에서 이루지 못했던 많은 부분을 이곳 가상대학에서 아무런 불편없이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

행착오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얼굴을 마주 대하고 생활하는 전통적인 대학과 달리 서로의 이름과 ID로만 생활하는 가상대학은 사람과 사람이 상호 작용을 통해 정과 인간애를 느낄 수 있는 인간관계 형성과 체험학습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부상하는 가상대학이 현실세계에서 제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유니텔에서는 이를 위해 가상대학 입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강의 기간 중 학술답사나 야외수업

등을 통해 상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기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잘 융합하여 명실공히 첨단 기술과 인간의 정이 조화를 이루는 대학을 만들 것이다.



김 세 중

1988년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학사)
1990년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1989년-1992년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편찬 연구원

1992년-1995년 한국경제신문사 뉴미디어국
1995년-현재 삼성SDS(주) 유니텔사업부 정보개발팀 과장

시스템통합연구회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발표대회

**** 행사 안내 ****

- 1. 일 시 : 1997년 6월 12일(목) ~ 14(토) 3일간
- 2. 장 소 : 강원도 용평 리조트
- 3. 내 용 : 6월 12일 (목) 창립총회
6월 13일 (금) 논문발표
6월 14일 (토) 패널토의
- 4. 문의전화 : (042)860-6544, 팩 스 : (042)860-6508